

설 앞둔 전통시장, 모처럼 '복적'... "대목無" 한숨도



26일 오후 찾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광장시장 2층에 빼곡히 자리잡은 한복가게는 손님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설날 앞두고는 사정이 좀 나아요"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둔 26일 주말 오후 서울 곳곳 전통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찾았다.

친정 어머니와 한복 가게에 들렀다는 이정후(34)씨는 "두 딸이 지난 딸의 설빔을 사러 왔다"며 "추석에 한복을 한번 입혔는데 이제 겨울이라 추위 누빔이 있는

시장 이동복 거리, 자녀 설빔 구매자 많아
제기 판매자 "평소보다 2~3배 판매량 증가"
"예년보다 덜 하지만 설 앞두고는 잘 되는 편"
일부 상인들 "설날 대목 없어졌다" 한숨도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이동복거리의 초입부터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가게들은 설날을 염두한 듯 겨울철 이동복과 함께 한복을 내걸었다.

한복을 사러 왔다"고 전했다. 네 살배기 아들의 한복을 사러 온 김시은(30)씨는 "아이 유치원에서 설날 맞이 행사를 하는지 한복을 입혀 오라고 했다"며 "세

뉴스스

라복 스타일의 퓨전 한복을 샀다"고 말했다.

제기를 파는 가게들도 분주했다.

남대문시장에서 제기를 판매 중인 이일호(55)씨는 "아무래도 설을 앞두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 일주일의 가장 피크 타임"이라고 했다.

이제 가게 근처에서 제기를 판매하는 박동관(61)씨도 "설날을 앞두고는 평소보다 2~3배 더 판매량이 증가한다"며 "설날에 대비해 물량을 더 많이 준비했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도 사람들로 북적였다.

과일가게를 운영 중인 김윤홍(66)씨는 "예년에 비해서는 덜하다"면서도 "그래도 설을 앞두고는 평소보다는 장사가 잘되는 편"이라고 밝혔다.

반찬가게를 운영 중인 한 상인도 "주말이기도 하고 설을 앞두고 있어서 손님이 좀 있는 편"이라고 전했다.

반면 '설날 대목'이 없어졌다 는 푸념도 있었다.

한복점들이 밀집해 있는 광장시장 2층은 한산했다. 서터가 내려져 있는 가게도 눈에 띄었다.

한복점을 40년째 운영 중이라는 박선자(76)씨는 "장사가 잘 안 된다 설이라고 더 잘 되는 건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50년 가까이 광장시장에서 한복점을 운영 중인 박순희(74)씨는 "그래도 예전에는 설날 때만 큼은 잘 됐는데 작년부터는 아니 다"라고 말했다.

광장시장에서 떡집을 운영 중인 이수희(56)씨는 "요즘 지갑들을 잘 열지 않는다"며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다음 주 즈음에는 좀 나갈지 모르겠지만 기대는 안 한다"고 했다.

제기를 팔아온 오충남(69)씨도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설날도 기대하지 않는다"며 "내일도 출근하려 했지만 장사가 잘 안돼 안 나올까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버스·지하철 막차 연장

새벽 2시까지 운행...고속도로교통에보 31일부터 제공

서울시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심야 귀성·귀경객을 위해 지하철과 버스 막차시간을 평소보다 늦춰 연장 운행한다. 귀경객이 집중되는 5일과 6일엔 지하철과 버스 막차시간을 늦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운행한다.

올빼미버스 9개 노선과 심야 전용 택시 2995대도 연휴기간 내내 정상 운행한다.

지하철 1~9호선과 우이신설선은 종착역 도착 시간 기준으로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다만 출발시간 기준으로 몇 시에 탑승해야 하는지는 역과 행선지마다 다르므로 역에 부착된 안내물이나 안내방송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이날 시내버스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기차역 5곳(서울역·용산역·영등포역·정랑리역·수서역) 및 버스터미널 4곳(강남서울고속버스·동서울·남부·상봉터

미널)를 경유하는 130개 노선이 대상이다.

또 시립묘지 성묘객을 위해 5~6일 이틀간 용마리(774번)·망우리(201, 262, 270번)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4개 노선의 운행 횟수를 늘린다.

시내 5개 터미널을 경유하는 서울 출발 고속·시외버스도 연휴기간 중 운행 대수를 하루 평균 720대씩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민차 기준으로 하루 수송가능 인원이 평소보다 4만여 명 늘어난 13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들은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누리집(http://topisscaul.go.kr)이나 서울교통포털 앱에서 일차별·시간대별 서울시내 도로의 정체구간과 통과 소요시간 예측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평소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IC~신탄진IC)도 설날 연휴

및 전날(2월2~6일)에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아울러 연휴기간 시와 자치구는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특별 지도단속을 나선다.

기차역 및 터미널 주변 도로 등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과 화재경보기 및 소방시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생활안전과 밀접한 지점의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대중교통 막차시간 등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누리집(http://topisscaul.go.kr)과 모바일 앱 '서울교통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문의는 120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고흥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설 명절을 맞아 귀성·성묘를 나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24시간 빈틈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대중교통과 도로 소통예보를 이용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녀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희 왔습니다"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둔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신흥민 공원묘지인 동화경도공원에 신흥민 가족들이 성묘를 하고 있다.

서울시-서울기술연구원, 미세먼지 해결 '기술개발' 협약

미세먼지, 황사, 악취 등 공동 연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시작

으로 도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교류 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연구교류 협약식은 오는 28일 10시 30분 서울보건환경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양 기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 개선 기술 연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수자원과 에너지 관리, 친환경적인 도로 관리를 위한

스마트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교류도 약속한다.

이번 연구교류 협약에는 ▲양 기관 간 연구 인력, 정보 기술 상호 교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 개발 ▲공동 연구 개발 성과물에 대한 실험 실증 ▲기술 세미나, 학술 자료, 출판물 및 지식 정보 등 상호 협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 인력, 데이터와 신기술이 결합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며 "긴밀한 연구협력을 기반으로 서울을 건강하고 안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로 탈바꿈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권 서울보건환경연구원장은 "우리 연구원이 지난 74년간 서울의 역사와 함께 쌓아온 보건과 환경 분야의 방대한 조사·분석 자료와 서울기술연구원의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이 만나면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 만들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 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